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14장(주 우리 하나님)
※ 교독문53(시편119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536장(죄짐에 눌린 사람은).....
예배기도 1부 안복선 집사 2부 정순임권사
응답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작은 불꽃 하나가”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령이 이끄시는,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요한복음 5:1-9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베데스다법칙으로부터의 자유 ”
기도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458장(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봉 헌 (사라, 한나회)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월-금)	
인 도 / 장영권권사	기 도 / 김인순권사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본 문 / 고린도후서1:3-7	성경봉독 / 한국회집사	본 문 / 갈라디아5:22,23	말 은 이	에스겔 강해	
말 씬 / 최세열목사	“위로의 공동체”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금요기도회	구역심방기간동안
현금기도/ 최경선권사	축 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모임이 없습니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김금자 함경숙 김한순	다 음 주 기 도	1부	이경훈전도사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강항구장로
	현금위원	10월 김금자 안해숙 김장숙 최근배	다 음 주	1부	말 은 이
		11월 공영순 이영란 김귀례 한은미	성경봉독	2부	김한순권사
식당봉사	금주 루디아A	다음주 루디아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말은이	
헌신찬양	금주 사라, 한나회	다음주	3구역		

베데스다 법칙으로부터의 자유 / 요한복음 5:1-9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눅4:18,19, 요 8:32)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을 지닌 인공저수지로서, 성전 가까이 있는 양문 곁에 만들어져 성전제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후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 치료를 위한 장소(아스클레페이온)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1. 베데스다의 법칙으로부터 일어나 자유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절망에 빠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일을 한 두 번 실패하면서 실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주님과 38년된 병자와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는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먼저 내려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되고, 1등 되지 못해서 38년이나 이렇게 누워있다는 생각. 이것이 곧 베데스다의 법칙입니다. 병 낫기를 원한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경쟁에서 이겨보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법칙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위해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행복하려면 일등이 되고,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영동한 목적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의 법칙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비교의식과 체면의식에 빠짐으로 행복을 추구하던 삶의 자리는 경쟁과 시기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절망과 좌절, 영동감에 빠져있는 그 병자와 우리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주창함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향해 걸어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본문 14절을 보면 성전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왔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꿈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롬14:8, 고전10:31). 사람들에게 의해 평가되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에 관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곧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베데스다의 법칙으로부터 자유 하는 참 자유인이 되십시오.

신앙주제 / 10. 행복한 전도자(2013.10.13)

제3과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마가복음 2:1-12절)

말씀 살피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면서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죄의 용서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바로 온 힘을 다하는 사랑의 마음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중풍병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이 그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방법은 무엇입니까?(4절)
2. 중풍병자가 일어나 누웠던 상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12절)

말 씬

육신의 병과 삶의 상처를 지닌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려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은 때로 그들이 지닌 육체적인 병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지닌 사람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닌 죄의 용서를 통한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전도가 지닌 이러한 신비를 맛보려면 온 힘을 다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도자는 상처를 지니고 사는 이들의 진정한 친구여야 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은 물론 걷을 수도 없고, 몸을 자유롭게 쓸 수도 없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네 사람은 그 환자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는 참된 의미의 동료요 형제요 친구였습니다. 전도자인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지닌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도자는 상처를 지닌 사람을 위한 최선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전도는 오직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환자를 침상 채 들고 왔고, 그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심지어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 친구를 위하여 온 힘을 다 기울이는 네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을 충분히 감동시키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셋째, 온 힘을 다하는 전도는 대상자의 육신의 병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게 합니다.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지닌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죄까지도 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죄가 용서 받았음을 선언하시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자 병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나갑니다. 전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처를 지닌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닌 최선의 믿음뿐입니다.

말씀적용

1.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지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해봅시다.
2. 그들이 지닌 아픔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 예배는 평신도 참여예배로서 사라, 한나회가 함께 했습니다.
2. 사도행전 전도축제 12주 85일간의 전도여행에 모든 교우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3. 가을 구역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심방은 24일-9구역, 26일-10구역입니다.
4. 오늘 찬양예배는 베다니집을 위한 여신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5. 제5차 작정밤기도회가 10월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기간:10.28-11.1.장소:1층 종합교육실 시간:오후8시)
6. 노회소식
 - * 경기노회 장로회, 남신도회 연합수련회가 10월 24일(목)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담당:박홍만장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 설교문 중에서

이 연못은 본래 기원전 2세기 시몬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만들어진 인공연못으로 그 규모가 굉장합니다. 길이가 100~110m, 너비가 62~80m, 그리고 깊이가 7 ~ 8m인 두 개의 쌍둥이 연못으로서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종교적,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두 저수지 사이를 분리하는 벽의 아래 쪽에서 물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한 북쪽의 저수지에 일정한 양의 물이 차면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남쪽의 목욕장으로 물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예레미야스는 이 장치를 가끔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왜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 연못의 목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기 1세기에는 저수지와는 별도로 깨끗한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급수대도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래 이 저수지절은 성전제사를 위해 도살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 로마시대 도시들마다 널리 퍼져있었던 오늘날의 종합병원격인 아스클레페이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페이온(Asclepeion)은 기원전 6세기경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병원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목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아스클레페이온의 한 가운데는 맑은 물이 흐르는 분수대와 저수장이 있었습니다. 피부병의 경우 진흙 마사지를 받게 했고 태양 별 아래 맨발로 걷는 것도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음식요법으로서 포도주나 기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상에 따라 필요한 약재가 동원됐고 간단한 수술이 시행되기도 했고, 한밤중에는 신전의 제사장이 하인들을 거느리며 환자들의 병상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스클레페이온에서 가장 중시하는 치료법은 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곳에는 극장이 있어서 연극과 음악 감상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심리치료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성전가까이 있는 양문 곁에 만들어져서 성전제사를 위한 저수장으로 사용되었지만 후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 치료를 받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을 뜻하는 베데스다로 불렸던 것입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42 2013.10.20.

10월의 행사안내

1. 10월 평신도 참여예배 - 10월 20일 - 사라, 한나회
2. 전도간증집회 - 10월 13일 찬양예배 / 이성형선교사
3. 해든솔선교활동 - 10월 12일(토) 오전8시30분
4. 제5차 작정밤 기도회 - 10월 28일-11월 1일 오후8시
5. 베다니집헌신예배 - 10월 20일 찬양예배 / 여신도회
6. 2차 전교인전도대회 - 10월 27일 찬양예배
7. 노회행사
 - * 경기노회신도대회 - 10월 13일 오후4:30 산운교회

제5 차 작정밤기도회

- 기간 : 2013년 10월28일 -11월 1일
- 장소 : 종합교육실
- 시간 : 매일 저녁8시
- 주제 : 교회를 위해 무릎 꿇게 하소서!
 첫째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사도행전20:24-28)
 둘째날 교회를 위해 전도하는가?(고린도전서2:1-5)
 셋째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가?(에베소서4:11-12)
 넷째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가?(빌립보서2:1-8)
 다섯째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가?(마태복음6:9-13)

새가족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된 새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조예성-원천동 주공아파트(010-4764-4926) / 베드로회 /2구역
 ● 나금옥, 조종순 -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자이 5206-2601 243-2634 / 바나바회, 마르다회 / 3구역

답임특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강영규**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최임춘 노대성 정재영 엄정현 천사라 서영자 김영란 김희숙 허 웅 김순님 오복실 곽현석 박정일 박지영 심복례 최승만 이현옥 지국남 최세열 조성순 박치국 이영란 강경원 한국희
- 감사헌금 : 김기희 김병국 최세열 조성순 신공남 최근배 김희숙 김운수 이근옥 (심방)김혜경 (일천번제)김동현 (선교)이영란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박치국 이영란 허 웅 김순님 심승기 마르다 조은미 노순영
- 비전씨앗 : 배영인 김태라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양석인	3	9,000	10	천사라	7	강은순	이영선	김정숙				
2	정정희	김한순	공영순	9	44,000		김한순	8	김순님	오복실	김정숙	6	34,000	30	오복실
3	이춘호	황경숙	김해경	9	38,000	200	신공남	9	김인순	이영란	한미경	3	11,000	100	김미연
4	김기희	최경선	김기희	9	27,000	20	정선례	10	장영분	박현순	안복선	3	20,000	100	
5	이문순	원혜경	교 회	4	18,000										
6	류종란	김애자	안해숙	4	22,000	170	정순임	계				50	223,000	530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도실